

철학사

66 듀이의 재건주의 철학 (아서 홈즈 박사, 휘튼 대학교)

오늘은 에드거 앨런 포셋의 저서, 『철학에서의 재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책을 가지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현상학과 실존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주 다음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아야. 아니,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

제 얘기에요. 아야. 그 시험들은 답안 작성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시험에 답을 적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요. 그리고 남은 4주 동안은 19세기와 20세기의 경험주의 철학과 분석철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된 것 같네요. 좋아요, 듀이의 재건. 제목 에서 이미 힌트를 얻었 죠? 그래서 그 제목에 맞춰 모든 챕터에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것저것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제 생각에는 저자가 책 전체에 걸쳐 제목의 주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고전 철학이 어떠했는지와 철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생겨나는 거죠. 하지만 그가 기존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전 전통과는 매우 다른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고전 철학은 형이상학에서 과정보다는 실체를 중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실체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본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근본적인 실체는 당연히 인간을 구성하는 실체, 즉 단일 실체 또는 신체 실체, 물질, 그리고 그 속성과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실체 중심적 관점에서 과정 중심적 관점으로 전환할 때, 실체적 사고에 의해 형성된 영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을 철학에 적용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인간을 경험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왜 경험일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존 로크 이후의 경험주의 전통에서처럼 과거에 대한 기억 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경험 속에서 어떻게 동일시되는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즉, 우리가 의식하는 정체성은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론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물론, 또 다른 이유는 칸트를 따라 인간 의식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렌즈 역할을 하는 헤겔주의 전통, 그리고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의식이 전개된다고 보는 헤겔주의 전통에서 진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번 에 언급했듯이 듀이는 진화적 자연주의자이기 때문에, 진화 발달 과정은 실제로 광범위한 경험의 과정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삶이란 경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현실'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초보 학생들이 형이상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현실'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속에서 실재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형이상학은 사물 그 자체, 즉 현실 에 관한 학문입니다 . 하지만 현실은 이제 제 경험의 현실을 의미하게 되었죠. 음, 그건 19세기 독일 전통에서 벗어나 실존주의 등으로 이어지는 사상 흐름의 일부이고, 특히 화이트헤드와 듀이에게서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경험이라는 개념, 즉 존 로크가 제시했던 것처럼 단순한 관념들로만 이루어진 얇고 단편적인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개념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

인간 본성을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 그가 인간은 지성보다는 욕망의 존재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구체적인 경험에는 감정적 지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기능주의 심리학을 더하면, 어쨌든 사고는 경험에 대한 생물학적 유기체의 기능일 뿐이며, 그 경험은 처음에는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고정된 본질을 지닌 육체에 깃든 이성적인 영혼이라는 개념과는 매우 다른 인간관입니다.

아주,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첫 장에서 처음 몇 페이지에 걸쳐 그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말하자면 책 전체의 전제인 셈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옛 철학이 이론적 교리로 굳어진 것은 욕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핵심은 욕망입니다. 철학, 교리, 도덕적 신념은 과거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려는 욕망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이상들을 영속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과거를 급속도로 동결 건조하고, 그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적인 입장을 가진 철학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험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고, 삶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교리의 집합이 아니라, 경험과 욕망, 욕망의 갈등,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여야 합니다.

듀이에게 철학이란 어떤 교리의 집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태도, 즉 철학적 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듀이를 진화론적 자연주의자라고 부르고, 그에게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뿐 아니라 방법론적 자연주의까지 부여할 때, 제 철학적 양심상 약간의 망설임이 생깁니다. 듀이는 자신이 고정된 교리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는 고정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의 진화론적 자연주의이고, 또 하나는 기능주의 심리학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자유롭게 피드백, 반응, 질문 또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5페이지 하단에서 그는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의식, 즉 그가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의식, 경험은, 스스로에게 맡겨졌을 때, 욕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은 지적인 연구, 탐구, 또는 사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욕망의 산물입니다. 의식이 희망, 두려움 등에 의해 주로 활성화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오직 인간 본성과 무관한 훈련에 종속될 때뿐입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인공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전 철학의 인공성은 문제가 됩니다. 좋습니다. 2장에서 다루는 역사적 요인들, 즉 철학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역사적 요인들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지식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철학은 불변하는 본질에 대한 불변하는 진리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 경험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추상화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즉, 종의 본질을 경험으로부터 추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 원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연역적 추론을 하고, 그것을 추상화하세요. 이것이 지식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은 프랜시스 베이컨이 "지식은 힘이다"라는 고전적인 격언을 통해 제시한 것입니다.

본질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불변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변화시킬 힘을 행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바로 그 점이 큰 전환점입니다. 이전 시대는 증명과 입증을 원했지만, 새로운 시대는 발견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듀이가 구상한 것은 지식의 유용성, 즉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준다는 베이컨의 비전을 확장한 것입니다. 자연과학에까지 그 비전을 확장한 것이 바로 베이컨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새로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꿈꿨던 과학적 유토피아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는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유토피아에 대해 매우 흥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과학적 유토피아에 대한 글을 썼을 뿐이에요.

듀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 경험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발휘되는 것과 같은 힘입니다. 이제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의 생각은, 지난번에 간략히 언급했듯이, 그의 새로운 논리가 발전시킨 문제 해결 기법, 즉 지식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인간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국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는 주로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사이, 즉 1918년에서 1940년 사이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경제 불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서구 세계 전반에 걸친 사회주의의 발전과 소련에서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등장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기존 체제의 엄청난 격변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유럽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그는 정치적 긴장감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 대전이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라는 오래된 꿈 말이죠. 20세기 말인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쩐지 미소를 짓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동안 여러분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는 게 보이네요.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왔는지 보라. 그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등 해결. 보시다시피, 갈등 해결이라는 개념은 정치학의 특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학을 갈등을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존 듀이가 정의한 정치의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정치가 응용윤리학의 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사회과학으로 발전 하고, 사회과학이 듀이와 같은 도구주의적 지식관에 의해 지배되면서, 정치는 듀이의 도구주의 윤리학적 의미에서 제외하고는 응용윤리학의 한 분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요인들이 그 시점에서 중요해집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그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이컨의 언어로 말하자면 43의 끝. 우리는 과학을 통해 자연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해 왔다. 기술 혁명을 보라.

우리의 과학은 아직 이 명령을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체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적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빈도는 미미합니다. 이러한 한계가 바로 오늘날 철학적 재구성에 있어 특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는 그런 점에 대해 상당히 명확하게 말합니다. 물론 그가 원하는 것은 사회 변화가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원칙에 대한 투자에서 출발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죠.

상황 윤리를 공공 정책에 적용한 것. 이 재구성의 근간이 되는 과학적 요소(3장)는 자연 세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즉 자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자연과학의 역사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전해

내려온 형상론, 즉 종의 불변성, 고정된 목적을 의미하는 형상론을 분명히 부정합니다.

그가 말하는 닫힌 세계. 이미 잠재력이 정의된 우주라고 해봅시다. 정의된 잠재력 말이죠.

닫혀있는 상태. 무엇이든 가능한 열린 상태와는 다르다. 그런데 듀이의 사상과 사르트르의 사상 사이에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다.

신이 죽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정해진 목적이 없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정해진 형태가 없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장 폴 사르트르가 했던 것과, 그보다 조금 앞서 미국의 듀이가 좀 더 온화한 방식으로 했던 것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듀이는 유럽 대륙에서 발전하고 있던 실존주의의 미국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가치 중립적이라면, 우리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 그리고 듀이는 특유의 도구주의적 관점 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 따라서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비추어 볼 때, 현대적 해석은 고정된 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형태란 없습니다. 이것은 무한히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닫힌 세상이 아니라 열린 세상입니다.

물론 이는 봉건적 위계질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의 신중함을 뒷받침하는 자연법도 없습니다. 자연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항상 문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황적 목표이며, 따라서 끊임없는 진화적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70페이지에서 그는 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정된 형태와 목표는 변화에 고정된 한계를 설정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좁은 범위 내에서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규제하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를 봉건적으로 만듭니다.

로 미리 단정짓는 이론으로 마비시킨다 . 고정된 목적이 자연에서 배제된 후에야 목적이 인간 정신에서 존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한지는 확신할 수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통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목적론을 통해 존재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자연과 은총의 모든 본질은 적절한 목적에 맞게 재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듀이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은 꽤 명확합니다 . 사실, 첫 세장에서 역사적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4장은 '경험과 이성에 대한 변화된 개념'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는 기본적으로 경험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쪽, 82쪽, 83쪽, 84쪽에서 이 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저자는 82쪽, 새로운 단락의 시작 부분에서 운에 대한 경험주의가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그런데 지난주 이맘때쯤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글에서 같은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화이트헤드가 경험적 관념, 즉 운에 대한 경험적 관념은 포괄적이면서도 분리적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는 경험이 분리적이면서도 포괄적이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말해, 로크의 관념은 원자론적이고 고립되어 있으며, 각각이 내부적인 상호 관계가 없는 섬 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외적이고 분리적입니다. 화이트헤드는 하나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다른 관계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관계를 주장합니다. 내적 관계도 존재합니다.

듀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경험에는 고립된 경험의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속체가 있고, 내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

로크에게 있어서 그것은 해체적인 것이다. 흠은 그것의 인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83장 하단에서 그는 새로운 경험 개념을 가능하게 한 두 가지를 소개한다.

실제로 경험하는 방식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 그는 86쪽에서 이 점을 다시 언급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둘째는 생물학에 기반한 심리학 의 발전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를 지적합니다 . 생물학 발달의 효과는 생명이 있는 곳에 활동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이고 환경에 적응하며 수동적이지 않은 활동. 따라서 경험에는 인과 관계의 연속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86세 이상에서 경험은 주로 행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맥코버 처럼 가만히 서서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 이 문학적 비유를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맥코버 씨, 항상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건 디킨스 작품이죠. 그리고, 어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올리버 트위스트였나, 아니면 데이비드 코퍼필드였나? 데이비드 코퍼필드였죠.

맥코버 씨는 항상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맥코버 씨답게요. 그 유기체는 맥코버 씨 처럼 가만히 서서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

그것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무언가가 자신에게 감명을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구조에 따라 주변 환경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물학적 연속체 속에서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재된 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 그는 생물학적 경험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는 원자론적 관점이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5 페이지 중간쯤에서 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성은 경험과 분리되어 우리에게 보편적 진리의 더 높은 영역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칸트적인 능력으로서 일반성과 규칙성을 도입하는 이성은 점점 더 불필요해 보입니다.

전통적인 형식주의와 정교한 용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개념을 거부하고, 과거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제안들을 성공과 실패를 통해 검증된 특별한 재구성의 목표와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 의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지적인 사고이다.

그가 원하는 논리적 사고력은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 합니다 . 풍부한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사고 실험이나 실제 실험을 거쳐, 그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다시 말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지능입니다 .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이제 그의 교육관이 왜 그렇게 달랐는지, 경험에 대한 그의 변화된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들에게 변증법이나 추상화를 가르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변증법이나 추상화는 영원한 진리를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알 켜어요? 보편적인 원칙 말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당신이 하려는 것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실용적인 지능을 사람들에게 길러주는 것입니다 .

문제 해결이죠. 그의 소위 진보적 교육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이상적으로 교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책이나 교실에 있는 아이디어, 혹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탐구하고 상황을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거죠 .

추상화된 사물로부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려는 시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학습 유산의 가치는 문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경험적 자산을 풍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

“과거를 소홀히 하는 자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격언이 있죠. 하지만 과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인간 본성이나 역사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럼 5장인데요,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라고 했고, 안 읽으셔도 된다고 했던 장이죠. 맞나요? 네,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라고 했었죠. 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 5장도 읽어보세요. 자비의 질은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요. 너무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나머지 부분을 다 읽고 나면 이 부분은 아주 빠르게 훑어볼 수 있어요.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플라톤의 이상과 현실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플라톤의 이상과 현실의 이분법 말이죠.

모두 전통적인 이원론, 즉 정신과 육체, 실재와 이상, 현실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

보시다시피, 그의 요점은 플라톤적인 초월적 이상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상. 아닙니다. 이상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겨나는 것일 뿐입니다.

이상이란 당신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해결책이 필요해지기 전까지는 그 이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인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은 문제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과 가치의 연속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플라톤의 이원론뿐만 아니라 계몽주의 시대의 사실과 가치라는 이원론과도 결별합니다. 가치 없는 우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치는 일종의 외부적인 직관일 뿐입니다.

아니오, 듀이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우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주로 욕망 에 기반합니다 . 그리고 생존이 위협받으면 생존이라는 이상이 부각되고,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보시다시피, 영원하고 불변하는 가치는 없지만, 사실과 가치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그 연속성은 경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당신이 읽지 않고 있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다음 장인 6장, 논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다루겠습니다. 기존의 논리는 형식 논리였습니다.

그건 연역적이었어요. 새로운 논리는 경험적이죠. 뭐, 그는 그걸 실험적이라고 부르지만요.

네, 바로 과학적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질서정연한 사고방식이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 패턴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논리는 바로 그런 실험적 사고방식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가치들, 그리고 위협받는 가치들을 인식하면서.

가능한 가치들.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들이 생겨납니다. 아이디어란 무엇일까요? 아, 단순히 이차적인 속성 같은 아이디어들이 아닙니다.

아니요. 아이디어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올랐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히 말해 행동 계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일상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고의 구조는 고정된 개념이나 이론적 교리가 아니라 가설에 기반한 아이디어, 즉 도구에 불과한 아이디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이죠.

그것들은 본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참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임스가 진리를 금전적 가치에 비유한 것이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금전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고정된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족된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생각이 주어진 상황에서 존재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유용하다면 그것은 진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그 핵심은 157페이지 하단,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용성으로서의 진리란 재조직과 경험에 기여하는 데 있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환경에 적응하고, 그 아이디어가 주장하는 바대로 재조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도로의 유용성은 강도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로로서, 쉽고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지로 측정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의 유용성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은 유용한 가설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은 도덕적 재구성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 봐야 할 몇 가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

첫째로, 듀이가 아이디어를 논할 때 '효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가 일종의 공리주의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그러한 생각을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리주의는 과거 의 경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주의는 지식을 구축하고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지만 , 그 기반은 과거의 경험적 일반화에 있었습니다 .

공리주의자가 도덕 규칙을 정립한다는 것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 , 또는 그 밖의 선을 극대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려 할 때조차 지식의 초점은 과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듀이에게 있어 지식의 초점은 항상 미래이지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미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가설의 형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오직 가설의 형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 경험이 그 가설을 뒷받침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문제 상황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일반적인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적 일반화에 기반한 일반적인 규칙이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는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할 수 있는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지식은 경험적 일반화를 통해 무언가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된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통해, 가설이 참일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가설이 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리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첫째,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최고의 선에 대한 일반화보다는 특정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

셋째, 어떤 경우에도 규칙에 따른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규칙에 따른 도덕의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경험주의자들도 과학 연구를 할 때 가설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 17세기에도요? 네, 하지만 그는 문제 해결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에 중점을 두는 사고방식이죠. 반면에 공리주의자는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어떤 고정된 이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정된 이상이란 특정 공리주의자가 생각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의미합니다. 쾌락주의를 신봉하는 밀이라면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이 그것이겠죠. 우리가 이상적 공리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풍부한 형태의 최대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에는 과거와 미래에 걸쳐 적용되는 고정된 목표,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연속성이 있었죠. 그런데 듀이의 방식에는 그러한 연속성이 없습니다.

최고점은 없다.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재화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특정 문제를 다룰 때는 과거와의 연속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말은 다릅니다. 네, 맞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는 과학적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덕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장은 도덕적 개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 그를 공리주의 윤리와 동일시하기 쉬운데, 바로 그 공리주의 윤리와 듀이의 상황 윤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리주의는 과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공리주의자는 미래에도 변치 않는 몇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구현됩니다. 하지만 듀이는 이 두 가지 점 모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도덕적 재구성 장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가 악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는 같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악의 진정한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악, 겉보기에 목적 없는 악의 존재가 전적으로 선하고 지혜롭고 전능한 신의 존재와 논리적으로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논리적 문제입니다. 아니, 악의 진정한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문제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그는 이론적인 논쟁이나 이해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듀이에게 그런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었으니까요. 왜 무의미했을까요? 그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실용주의적 의미 이론 때문에 무관합니다. 무관하다는 말은 실용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금전적 가치가 부족합니다.

월요일에 언급했던 것처럼, 실용주의를 생각할 때 듀이를 포함한 실용주의적 의미 이론과, 관념의 의미는 그것의 실제적인 결과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리의 검증은 이론의 진실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정의는 바로 실용성입니다.

그리고 문체는 누군가가 '부드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의미의 정의와 진리의 정의에 있어서 말이죠. 의미의 정의와 진리의 정의에 있어서 부드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듀이의 책을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읽기 쉽다고 느끼시나요? 제 생각엔 칸트 이전 시대 이후로 가장 쉬운 책일 겁니다. 저를 보고 놀라시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의 문체에 익숙해 지기만 하면 돼요. 그는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글을 쓰지만, 문체는 헤겔과 꽤 비슷해요.

선형적인 사고방식, 즉 로크나 흄처럼 한 명제에서 다른 명제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변증법적인 사고방식에 가깝습니다. 어떤 개념을 정-반-합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명제와 새로운 명제의 반론을 대조하여 개념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한 장의 시작 부분에서 이전 장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마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각 장이 조금씩 진전되지만, 이전 내용을 되짚어보면서 미리 출발하는 거죠. 그런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책을 정말 빨리 읽게 돼요. 두고 보죠.

오늘날 실용주의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듀이는 1950년대에 세상을 떠났지만 실용주의는 현대 미술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여러 인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W.V. 오킨 교수님 이시고, 그분의 저서 『믿음의 그물(The Web of Belief)』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물. 이 책에서 그는 생각, 믿음, 이론들이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하나의 상호 지지적이고 통일된 일관된 전체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믿음의 그물망에 대한 일관성 이라고 할 수 있죠. 콰인은 근본주의적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믿음은 삼단논법 증명의 마지막에

나오는 명제처럼 독립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믿음의 그물망은 그렇게 성장해 온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체계는 사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얽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믿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자연화된 인식론이 깔려 있습니다.

자연 에 기반한 심리학 의 일부로 발생한다는 견해입니다 .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단순히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도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콰인은 초기 연구에서 기존의 분석철학과 종합철학의 이분법을 거부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 실질적인 목적뿐 아니라 이론적인 목적에서도, 진술, 혹은 명제는 맥락에 따라 분석적일 수도 있고 종합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맥락에 따른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 예시이긴 하지만, "신은 선하다"라는 명제는 유신론자에게 분석적 명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이라는 개념 안에 이미 논리적으로 내포된 내용을 단순히 풀어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석적 명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다른 담론 맥락에서 종합적인 명제로서 기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하신 신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할 때나, 최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기억하세요, 신은 선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고통 속에 묻혀 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신의 어떤 부분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요점은 명제의 도구적 기능에 따라, 즉 명제의 도구적 기능에 따라 분석적 종합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용주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리처드 로티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 다윈주의 강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리처드 로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가 한 일은 현대 종교 다윈주의 논쟁 전체를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종교 다윈주의 논쟁은 서로 다른 종교적 입장을 동등하게 수용 가능한 것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어느 한쪽이 진리인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경향에 관한 것입니다.

청중이 그러한 입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떤 입장이 참임을 증명하려는 계몽주의적 인식론을 거부하고,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후로 그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즉 주관성의 극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결과 모든 것이 상대화된다는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영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는 리처드 로티를 예로 들었는데, 그가 특히 강조한 두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유럽 출신의 푸코였죠. 로티는 프린스턴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버지니아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원래 철학을 전공하다가 인문학으로 전향했습니다. 철학 연구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결정적인 것은 그가 10년에서 15년 전에 쓴 책, 『철학과 자연의 거울』입니다. 그 책에서 자연의 거울은 관념이 알려지지 않은 현실의 표상이라는 견해를 의미합니다. 데카르트, 로크, 칸트 등이 주장했던 표상론적 관점이죠. 그의 요점은, 우리 마음속에 자연의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표상론적 관점, 즉 인식론의 실패 때문에 철학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는 표상론적 관점 안에서의 논리적 확실성 아니면 순전히 회의주의뿐이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진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다양한 대안적 입장들을 접하게 될 뿐이고, 기껏해야 흥미로운 대화 정도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때문에 그가 버지니아로 이사했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으로 넘어가서, 그의 책에서 실용주의적 관점은 부분적으로는 듀이의 사상을 비롯한 여러 사상을 접목하고, 의미와 진리에 대한 실용적인 이론을 수용한 데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표상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철학에 남은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람들도 그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3의 대안, 즉 19세기나 18세기의 의미에서처럼 재현적이지 않은 다른 인식론적 방향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회의주의와 완전한 확신, 이 두 가지 대안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던 적은 결코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실용주의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럼 월요일에 실용주의에 대해 몇 가지 더 이야기 나누고 토론할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시작하죠.